

## 論理哲學과 實踐哲學에 對하여

(知와 行에 對한 一考察)

安浩相

拙者は 여기서 이 問題를 廣範圍로서 考察해보려는 것이 아니고 最少範圍 내에서 知와 行의 客觀的 關係를 한번 밝혀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知와 行의 問題의 哲學史的 意味를 알고저하여 먼저 泰西의 哲學史를 簡單이 考察하겠으며 다음에는 儒敎哲學(특히 大學과 栗谷先生全書)을 中心삼아서 知와 行의 關係를 體系的으로 表明하여볼가 한다.

東西古今 下三千戰에 哲學의 概念은 屈曲없이 順調로 發展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哲學의 發展이 一定한 統一된 思想으로서 된 것이 아니다. 縱으로는 時代를 따라 닳아졌으며 橫으로는 社會와 個體를 따라 달리져서 哲學概念에 對한 海石과 定義는 各人各色으로 되고 마렸다.

語源學的으로 考察한다면 古代希臘 (西記前 六七世紀)에선 「哲學」(Philosophieren)과 또 「哲學하는 것」(Philosophien)을 「知를 追求함」 「知를 爲한 知의 追求」라는 意味로서 使用하였었다. 소크라테스에 있어서도 哲學이 亦是知의 追求란 것을 意味하였으며 플라트는 哲學者를 「絕對知者와 無知者사이에 있는者」라 하였으며 또 哲學은 「知의 獲得」으로서 學一般이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哲學은 萬物의 原理學이라고 名命한 同時에 哲學을 다시 理論哲學과 實踐哲學으로 나누었다. 哲學이 大體實踐의 轉向을 取하게된 것은 希臘末期와 中世의 初期의 스토아學派와 에피쿠로스學派이 었으며 또는 예수 敎時代인 中世紀에서 亦是그러하였다. 그리하다가 十七八世紀에 이르러선 哲學은 다시 理論方面을 重視하게되었다.

칸트는 自己의 「實踐理性的 批判」이라는 著書에서 「實踐理性的 優位」를 (Primat der praktischen Vernunft)主張하였지만 그이의 哲學이 認識論을 根本基礎를 삼었던 것은 속일 수 없는 事實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純正哲學은 純粹理性으로된 認識」(Die reine philosophie ist Erkenntniss der reiner Vernunft)이라하였다. 칸트에 있어선 哲學的 認識은 認識의 認識이요, 「哲學은 科學의 科學」이다. 비로피히테가 「實踐的이 되려는 때문에 우리

는 理論的이다」(Wir Sind uheoretisch, um prapktisch an rein)하였으나 그의 哲學의 偉大性은 自我(人生)와 宇宙의 깊은 認識에서 存立한것이다. 그의 哲學은 科學的 認識을 더 科學的으로 認識하려는 때문에 即 哲學은 科學을 再認識하려는 때문에 哲學은 科學으로서 「科學論」(Wissenschatslehre)이라고 規定하였다. 헤겔은 哲學은 「絶對것에 對한 認識」이며 「絶對것에 對한 科學」이라고 하였다. 特殊科學이 發達된 現代에 있어서는 무론 實證主義의 立場을 多少間 갖었지만 哲學은 「科學的 知識의 統一이며 綜合」이라고까지 主張하였다.

希臘으로 붙어 現代까지 二千餘年の 哲學史를 볼적에 哲學의 俗化時인 스토아며 에피쿠로스學派와 또는 哲學의 沈默時인 中世紀를 除外하면 認識 即 理論的 要素가 哲學體系에 決定的이었던것은 自他가 共認하는바이다. 泰西諸國은 그러하다하려니와 우리 東洋은 어떠한가? 다른 哲學은 그만두고 儒敎 哲學을 한번 例를 들기로 하자.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儒敎는 十四子의 學說은 모다가 異端이며 虛無寂滅之道라 하여서 모조리 排斥하였다. 儒敎의 要點은 三綱五倫이며 儒學의 目標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다. 儒敎의 學理가 그러하였으며 儒學의 態度가 亦是實踐方面으로 기우치고 만 것은 二千餘年の 支那와 朝鮮의 儒學이 磼연이 明示하고 있는 바이다.

이와 같이 時代와 社會를 따라 或은 理論方面 或은 實踐方面이 哲學體系에서 決定的 要素가 되었었다. 그러나 우리는 歷史的 事實을 無視하며 否認할 수도 없는 反面에 歷史的 事實을 絶對眞理라고 認定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歷史的 事實은 이러하지만 저것이 도리어 眞理인수도 있으며 또 저러 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眞理인수도 있다. 事實이 있는데서 是뿐아니라 非를 또한 차저 내며 事實이 아닌데서 非뿐아니라 또한 是를 차저 념이 學究者의 使命일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歷史的 事實에만 磼매이지 말고 淺見과 微力을 다해서 先哲의 말씀을 再參考해서 理論과 實踐即知와 行의 客關的 關係를 明白히 意識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哲學이 무엇이라고 論理로서 證明대며 雄辯으로서 說明하지만 知와 行의 客觀的 關係를 알지 못하고는 그의 說明과 證明은 오즉 不明한 辯明에 不過할 것이다.

知와 行의 바른 認識은 知와 行의 關係에 對한 깊은 認識으로서 비로서 可能할 수 있는 것이다. 泰西哲學은 그만두고 東洋의 儒敎哲學만을 參考해보기로 하자. 우에서 본바와 같이 儒敎의 本髓는 「知」가 아니라 「行」임으로서 知에 對한 行의 優位는 重言을 不要한다. 여기서 儒學의 根本思想 中 그 하나인 것을 表示하는 文句를 秒綠한다면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物格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以上大學首章)

明德을 天下에 밝히려면 格物致知의 前提로서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物格而知至而后라야 비로소 國治而天下平할 것이다. 이것을 본다면 治國平天下하는 그와 같이 偉大한「行」이지만 「物理之極處」를 「知」하지 못하고는 絶對로 不可能한 것이다. 아무리 「聖賢之學 不過修己治人而已」라고 해서 行을 知보다 重히 擣이지 마는 그것은 儒學에 對한 깊은 認識이라고 볼 수 없고 한갓 皮相的 觀察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知易行難이란 聖賢의 말씀이 우리 平凡한 庶人에 對한 訓誡의 말씀이요. 그것이 결단코 聖賢의 自身과 또는 事物窮極之理에서 그리하다는 것이 아니다. 「不明乎善 不誠乎身矣」(中庸, 孔子語)이란 말씀만 보드라도 誠乎身은 반드시 明乎善의 前提로서만 될 수 있는 것이다. 善을 知지못하고는 善을 行할 수가 없는 法이다. 知와 行에 對한 이 相互關係를 理致認識으로서 뿐만 아니라 言語的으로까지 明白하게 表現한 것을 다음의 李栗谷先生의 말씀에서 認識할 수 있는 것이다.

臣案 修己工夫 有知有行 知以明善 行以誠身(栗谷先生全書卷二十, 第二章) 비록 修己治人을 爲主하여 「行」方面에만 置重한다는 儒學이 그 裡面에 드러가선 도리어 知方面을 가장 重視하는 것이 속일 수 없는 事實이다. 아무리 修己의 實踐을 하려하지만 知以明善을 하지 못하고는 行以誠身을 못할 것은 不問不知한일 일 것이다. 善行과 價値있는 行을 하지 못하는 것은 無論이려니와 價値있는 行을 하지 않은 것이 究極에 이르러선 亦是 善과 價値에 對한 투철한 知가 없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知에 對한 行의 優位를 絶對로 主張하는 儒學에서 우리는 反對로 行에 對한 知의 優位를 차저낼 수 있으며 또 善에 對한 眞知가 없이는 善行에 따라 없는 까닭에 知易行難이 아니라 도리어 行易知難을 主張할 수 있는 것이다. 行에 對한 知의 優位와 行易知難이란 主張에 大驚失色할 사람이 많을 줄 믿는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主張은 無知莫知한 理論이라하여서 조금도 難處없이 이 理論을 反駁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하여 知先行後라는 것을 저와 같이 解釋하여 說明하리라. 即儒學에 先知後行이라는 것은 知를 行보다 重하다는 意味가 아니라 知는 行의 手段임으로서 手段이 目的보다 앞에서는 것과 같이 知가 行에 앞선다는 意味라 할 것이다. 手段이 目的보다 時間上으로는 앞서지만 價値上으로는 目的이 手段보다 앞서는 것이다. 이와 같이 知와 行이 그 亦時間上으로는 先知後行이지만 價値上으로는 先行後知가 當然한 理致라 할 것이다.

目的이 手段보다 重한것은 三尺童子라도 녀석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行은 目的이요, 知는 手段일적에는 行이 知보다 貴重할것은 그 亦必然한 結果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質疑하며 反省하여 볼 것은「참으로 知는 手段이 되며 行은 目的이 되는가?」하는 것이다. 知와 行의 關係를 볼 적에 知는 行을 爲한 知이기 때문에 비록 行이 知로부터되었으나 行은 知의 目的으로서 知를 自己의 속에 包含한 한낱의 全部라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에선 그와 全혀 反對된 關係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知를 흙과 돌과 같이 주서 갖은 것도 아니며 筆冊과 같이 얻어 갖은 것도 아니며 또는 帽子와 같이 사 갖은 것이 아니라 오즉 우리의 精神의 獨特한 活動으로서 勞得한 것이다. 그럼으로 「知」는 精神의 活動即「行」으로 된 것이 分명한 同時에 知는 行이란 手段으로서 實現한 目的이란것이 또한 分명하다. 이로 말미암아 知는 行의 目的이요, 行은 知의 手段에 不過한 것으로서 知는 行에 對하여 優位를 表視하고있다.

行이 知에 對하여 優位的이 아니다. 知가 行에 對하여 優位的인것을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知는 行하려는 知며 또는 行이란 成果에서 비로소 知의 效果와 價値를 보게 된다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見解가 너무나 淺薄하다는 것을 自己自身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知한뒤에는 반드시 行하여야 될 것이다. 만일 知만하고 行치않는 그 知는 산 知가 아니라 죽은 知일것은 重言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만일 道德을 알기만 하고 道德을 行하지 않는다면 그이의 知는 아무 所用없는 知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할 적에는 이와 全혀 反對되는 事實을 發見할수 있다. 天文學者가 별다른 流星을 아라 내며 物理學者가 電氣를 아라 낸다. 그러나 그들은 流星的과 電氣的으로 行하지도 못하며 또 行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의 知와 人格이 何等所用도 없으며 價値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들 自體가 流星이 안되고 電氣가 안되는데서 비로소 그들의 知와 人格이 도리어 所用이 있으며 價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다시 다른例를 드려 보기로 하자. 우리는 누구든지 惡을 知해야된다. 그러나 우리의 이惡의 知는 惡의 行을 目的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惡의 行을 없애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惡의 知는 惡의 行에서 自己의 價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惡의 行이 없는데서 自己의 目的과 價値를 보게 된다. 어떠한 種類의 知든지 知의 目的을 반드시 行이라하며 또 知의 價値는 知의 實現인 行에 있다는 主張이 根本的으로 잘못된 것을 여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行이 知보다 重하다 或은 知가 行보다 重하다 하는 것은 知와 行에 對한

皮相的 觀察이오. 결단코 兩者에 對한 眞理認識은 아니다. 知를 行의 目的이라거나 或은 行을 知의 目的이라 하여서 兩者의 사이에 目的論的 從屬關係를 붙여보려는 意圖부터가 벌써 全혀 잘못된 것이다. 만일 知의 目的을 知以外것인 行이라 하며 或은 行의 目的을 行以外것인 知라고 主張하는 者에 對하여 우리는 知의 目的은 오즉 知自體며 行의 目的은 오즉 行自體라고 끝까지 主張할 것이다. 내가 여기 知의 目的은 오즉 知自體라고 強調하는데 對해서 或非難할리이 많을 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知를 單純한 常識과 또 鄙近한 知만을 상상하지 말고 조금 高尚한 知와 哲學的 認識을 생각한다면 知의 目的을 知以外에 찾으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잘 깨다를 것이다. 우리 人生의 知도 有限하지만 行은 더 有限한 것이다. 이 有限한 知를 더 有限한 行에만 비쳐보아 거기에만 맞게 하고저 한다면 知의 發展은 그만두고 도리어 知의 退化만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知한 것을 行할 수 있든지 없든지 或은 行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對해선 조금도 考慮할 것이 없고 오즉 眞理認識만 知의 絶對目的을 삼을 것이다. 우리는 眞理認識을 爲하여 認識하려 하지않고 恒常, 認識의 應用方面即行과 實踐方面을 對照하려는 까닭에 우리의 생각은 恒常偏見的이오. 先入見이 되어버려서 眞理를 바로잡이 認識하지 못하는 것이다. 「所知益明則所守日固」(程氏外書, 朱子語)란 옛말씀을 볼 적에 所知益明則 所行日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知가 높을수록 行이 또한 따라 높아지며 새 知를 갖을수록 새 行이 따르음을 또한 否定할 수 없는事實이다. 偉大한 行은 언제든지 偉大한 知로 붙어 制約되었오며 偉大한 行은 單只 그 行에만 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새 知를 가지려는데서 비로소 成立되는 것이다. 만일 行이 이미 知한것만 實行하고 다시 새 知를 目的삼지안는다면 그 行은 산 創造的 行이 아니라 한갓 힘없고 죽어가는 不幸한 行에 不過할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짖는 그 行은 모르려니와 우리의 理性이 要求하는 그 行은 이 行으로부터 다시 새 知로 옮겨가는 그 行이며 또 여기서 말하는 그 知는 行을 떠난 抽象的 知가 아니라 知를 自身속에 包含하고있는 그 具象的 知란것을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知行을 分離함은 非是窮理之所然이오. 但是思唯之所爲니라. 故로 知를 行으로부터 分離시키거나 或은 行을知로부터 分離시킴은 全然不當한일이다. 栗谷은 말씀하시기를

窮格踐履雖是兩項工夫要須一時並進 (李栗谷先生全書卷二十第十九章)  
窮格과 踐履即知와 行이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理致는 즉한 理致다. 兩者는 絶對統一에서만 存在할 수 있으며 또 이統一에선 相生相死의 關係를 갖고 있다.

行은 行의 目的이요, 知는 知의 目的이다. 行이 知를 目的삼을 수 없는 同時에 知가 또한 行을 目的삼을 수 없다. 行은 제가 제의 目的이므로서 제가 제의 手段임과 같이 知는 제가제의 目的이므로서 제가 제의 手段이다. 行과 知는 제들 自體가 目的인 同時에 手段이 또한 되는 것이다. 行은 手段으로서 제가 제의 手段만 되는 것이 아니라 知의手段이 또한 되는 것이며 知는 手段으로서 제가 제의手段일뿐아니라 行의 手段이 또한 되는 것이다. 서로 手段이 되는 知와 行은 다시 各自目的이됨은 論理的 必然한 結果다. 知는 行의 手段인 同時에 目的이 되는 까닭에 行의 完成은 언제든지 知에서 보게되며 行은 知의 手段인 同時에 目的이 되는 까닭에 知의 完成은 行에서 비로소 보게 된다. 行의 完成은 「行은 知다」라는 判斷으로서 表現할 것이며 知의 完成은 「知는 行이다」라는 判斷으로서 表現할 것이다. 「行은 知다」「知는 行이다」라는 判斷이 形式으로는 두 判斷으로서 나타나지만 終極에 이르러선 두 判斷이 아니라 行과 知의 依存關係의 表現으로서 오직 한날의 判斷이다. 知는 知自體속에서가 아니라 또 行은 行自體속에서가 아니라 兩者는 相互關係속에서 제들의 眞理를 보게 된다. 眞理에서는 知와 行 兩者가 相互肯定을 하는 까닭에 各自의 否定을 招來하며 또 兩者가 相互否定을 하는 까닭에 各自肯定을 前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兩者의 肯定과 否定이 끝없이 反復하여서 無窮한 程過(過程)를 産出하는 法이다. 이것이 眞理의 本性이며 이것이 眞理의 永遠한 發展을 意味하는 것이다.

우리는 一般으로 知의 眞理는 「知는 行이 아니다」或은 「知는 知다」라는 判斷이요, 또 行의 眞理는 「行은 知가 아니다」或은 「行은 行이다」라는 判斷이라 할 것이나 兩者의 眞理認識은 우리에게 그와 反對를 보여주고 있다. 即「知는 行이다」「行은 知다」라는 이 判斷은 知와 行의 唯一한 統一로서 兩者의 絶對眞理다. 知와 行의 眞理認識을 自己의 固有한 課題로 삼는 哲學은 知뿐아니라 行을 또한 아라야 될 것이다. 그러한 뒤에라야 兩者의 關係 即 眞理를 알 수 있다. 知를 알려니 哲學은 理論的이라야 될 것이며 行을 알려니 哲學은 다시 實踐的이라야 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傳統에 依하여 理論哲學과 實踐哲學을 兩個의 別다른 哲學으로서 取扱하지만 그것은 그러기보다 차라리 哲學의 理論方面과 實踐方面兩方面을 區別하는 것이 가장 適當할 것이다. 이 「理論的」인 것과 「實踐的」인 것은 哲學體系의 두날의 元기동柱礎다. 兩者는 哲學의 體系에서 不可無의 兩契機로서 優劣을 다투지 않고 드디어 永遠한 平和와 絶對의 平等만 享有할 뿐이다.